

교황청 신앙교리부
인간 존엄성에 관한 선언

무한한 존엄성
(*Dignitas Infinita*)

소개

2019년 3월 15일 회합에서, 당시 신앙교리성은 “학문 영역에서 이 주제의 최근 진전과 오늘날의 맥락에서 이 주제에 대한 모호한 이해를 감안하면서, 그리스도교 인간학에서 인간 존엄성의 개념이 지니는 간과할 수 없는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수준에서 그 중요성과 유익한 함의를 설명하는 문헌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동안 몇몇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첫 번째 기획은 같은 해 10월 8일에 열린 신앙교리성 내부에서 제한된 인원이 참석한 자문 회의에서 흡족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교리 부서는 문헌의 초안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초안은 2021년 10월 4일에 있었던 자문 회의를 거쳤고, 2022년 1월 당시 신앙교리성의 정기 총회 회기 중에 소개되었다. 이때, 참가한 위원들은 문헌의 길이를 줄이고 단순화할 것을 주문했다.

2023년 2월 6일, 부서 내부에서 열린 자문 회의에서 수정 본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는 몇 가지 추가적인 교정 사항을 제안했다. 교정 사항을 반영한 본문은 2023년 5월 3일(수요일) 열린 신앙교리부 통상 회의에서 평가를 받았다. 위원들은 몇 가지 추가적인 교정 사항을 거친 후에 문헌이 출판되어도 좋다고 동의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는 2023년 11월 13일 본 신앙교리부 장관에게 허락하신 알현에서 이 수요일에 이루어진 논의를 승인하셨다. 이때에 교황 성하께서는 본 장관에게 본문에서 가난의 비극, 이민자들의 현실,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인신매매, 전쟁과 그 밖의 존엄이라는 주제에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들을 본문에서 분명히 다룰 것을 요청하셨다. 교황 성하의 이러한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신앙교리부 교리 부서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을 심화하는 데, 한 차례의 부서 통상 회의를 할애했고, 여기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인간 존엄성의 문제에 대한 고유한 분석과 심화가 이루어졌다.

2024년 2월 28일에 있을 수요 정기회의를 염두에 두고, 2024년 2월 2일 위원들에게 발송된 편지에 본문의 새 초안이 첨부되었는데, 이 새 초안은 다음 내용을 기준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이 추가적인 초고는 교황 성하께서 요구하신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성하께서는 명시적으로 회칙 「모든 형제들」의 노선에 따라서 오늘날 인간 존엄성에 가해지고 있는 심각한 침해들에 더 관심을 집중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리

부서는 앞의 부분을 축소시키고 …… 교황 성하께서 지시하신 바에 따라서 문헌을 보다 자세히 다듬었습니다.” 마침내, 이 선언의 현재 본문은 2024년 2월 28일에 열린 신앙교리부 정기회의에서 확정되었다. 2024년 3월 25일 본 장관과 교리 부서 차관 아르만도 마테오 몬시뇰에게 허락하신 알현 중에, 교황 성하께서는 이 선언을 승인하시고, 출판을 명하셨다.

오늘 발표되는 본문의 최종 형태에 도달하기까지는 주목할 만한 성숙의 과정이 필요했다. 이는 그리스도교 사상에서 존엄성이라는 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중심적인 위치를 보여 준다. 5년 이상 이어진 이 문헌의 작성 과정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첫 세 부분에서 이 선언은 ‘존엄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서 자주 생겨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을 명백히 하려는 목적에서 기본 원칙들과 이론적 전제들을 다룬다. 제4부에서는 모든 인간 존재가 지닌 무한하고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이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오늘날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상황을 다룬다. 오늘날 인간 존엄성에 가해지는 이러한 심각한 침해에 대한 고발은 필수적인 행동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앙을 인간 존엄성 수호로부터, 복음화를 존엄한 삶의 증진으로부터, 영성을 모든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위한 노력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는 깊은 확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 존재가 지닌 이와 같은 존엄성은 “무한하다고”(무한한 존엄성, *dignitas infinita*) 여겨질 수 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도 특정한 한계나 장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시며,¹⁾ 인간 존엄성이 어떻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습 또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이 지니는 모든 성격을 넘어서는지를 보여 주셨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이 존엄성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였고, 모든 문화적 맥락과 인간 실존의 모든 순간에서 어떤 형태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또는 도덕적 결함에 상관없이, 이 존엄성을 지키도록 모든 사람을 초대하셨다. 이와 관련하여 이 선언은 우리 모두가 기본적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보편적인 진리 앞에 서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그를 통해 우리 사회는 참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건강하고, 마침내 참으로 인간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선언은 분명 모든 주제를 다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는 주제들은 분명 오늘날 많은 사람이 분명히 자각하지 못할 수 있는 인간 존엄성의 다양한 차원을 드러내 주는 주제들이다. 몇 가지 주제는 우리 사회의 다른 영역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겠지만, 어떤 주제는 그러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모든 주제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주제들을 함께 놓고 보면, 복음으로부터 힘차게 솟아나는 존엄성에 대한 생각이 지닌 조화와 풍요로움을 깨닫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성 요한 바오로 2세, 오스나브뤼크 주교좌 성당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드린 삼종 기도, 1980.11.16.,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Insegnamenti*) III/2 (1980), 1232.

이 선언은 이토록 풍요롭고 결정적인 주제를 완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역사적 순간에서 존엄성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성찰의 요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를 통해 많은 염려와 불안 가운데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추가적인 상처와 깊은 고통에 우리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

서문

1. 무한한 존엄성(Dignitas infinita), 인간은 그가 처한 모든 상태와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 존재 자체에 기반한 이 무한하고 결코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다. 단지 이성만으로도 완전히 알아볼 수 있는 이 원칙은 인격[* 역자 주: 문맥에 따라 인격 또는 인간이라고 번역하였다.]의 우선성과 그 권리 수호에 토대를 놓는다. 교회는 계시의 빛을 받아, 절대적인 방식으로, 하느님의 모상과 유사함으로(imago et similitudo Dei) 창조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된 인격이 지니는 이 존재론적인 존엄성을 거듭 확인한다. 교회는 이 진리로부터,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인격의 우선성과 인간 존엄성의 옹호”²⁾를 언제나 강조하면서, 약자들과 권력을 덜 지닌 이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근거를 발견한다.

2. 1948년 12월 10일 국제 연합 정기 총회에서 발표된 「세계 인권 선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성과 남성이 지닌 이러한 존재론적인 존엄성과 유일하고 탁월한 가치를 재확인하였다.³⁾ 이 「세계 인권 선언」 반포 75주년을 기념하면서 교회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모든 인간 존재가 지닌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으로 인해 그를 존중과 사랑으로 인정하고 대해야 한다는 교회 고유의 확신을 새롭게 선언할 기회를 맞이하였다. 그 기념은 교회가 인간 존엄성과 연관된 몇 가지 중대하고 긴급하며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데에서 종종 생겨나는 몇 가지 모호함을 해소할 기회 또한 제공했다.

3. 교회는 복음의 자극을 받아, 자신의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첫 순간부터 인간의 자유를 확인하고 모든 인간 존재가 지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⁴⁾ 최근 교황님들의 목소리가 전하는, 모든 인격이 지니는 근본적인 존엄성을 알아보도록 하는 쇄신된 요청을 통해서, 교회는 이러한 임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성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격이 지니는 독창성, 존엄성, 그 인격이 지니는 근본적인 권리의 불가해성과 풍요로움, 그 신성함, 교육받을 수 있는 능력, 완전한 발전을 향한 열망, 그 불멸성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이를 개별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어떤 인간학도 이에 대한 교회의 인간학에 비할 수 없다.”⁵⁾

2)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Laudate Deum*), 2023.10.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3(제1판), 39항,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 2023.10.4., III.

3) 1948년 국제 연합은 총 30조로 이루어진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였다. “존엄성”이라는 단어는 요소마다 다섯 차례 등장한다. 예를 들자면, 전문의 첫 단어들 가운데, 제1조의 첫 문장에 나타난다. 이 존엄성은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전문)으로 선언되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제1조).

4) 근대에만 관심을 집중해도 교회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인간 존엄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지 알 수 있다. 이 주제는 특별히 레오 13세 교황의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1891), 비오 11세 교황의 회칙 「사십주년」(*Quadragesimo Anno*, 1931)과 비오 12세 교황께서 “이탈리아 가톨릭 산부인과 협회에서 행한 연설”(1951)에서 발전되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 존엄성」(*Dignitatis Humanae*, 1965)이라는 문헌을 이 주제에 온전히 할애하고,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1965)에서 인간의 자유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이 주제를 특별히 심화시켰다.

5) 성 바오로 6세, 일반 알현, 1968.9.4., 『바오로 6세의 가르침』(*Insegnamenti*), VI(1968), 886.

4.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1979년 푸에블라에서 열린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주교회의 제3차 정기 총회 중에 다음과 같이 확인하셨다. “인간 존엄성은 하나의 복음적 가치이며 그것을 유린할 때에는 반드시 창조주를 크게 거스르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존엄성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유, 자기 종교를 고백할 권리, 신체적 정신적 온전, 기본 재산권 및 생명의 권리 같은 기본 가치들이 존중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도 이 존엄성이 유린됩니다. 인간이 참여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불의하고 불법적인 강제를 당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문을 당할 경우가 그것입니다. …… 만일 교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신장시키는 일에 간여한다면, 반드시 교회의 사명이라는 노선 안에서 간여하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종교적 성격을 띠는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을 그 존재의 총체성에서 고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⁶⁾

5. 2010년 교황청 생명학술원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언제나 지켜 온, 무엇보다 소박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을 때 지켜 온 근본 원칙”⁷⁾이라고 확인하셨다. 또 경제 전문가들과 만난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경제와 금융은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와 금융은 도구,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제와 금융의 목적은 오직 인격과 인간의 존엄성 안에서 충만히 실현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유일한 재화입니다.”⁸⁾

6. 재위 초반부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믿고” “하느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인간에게 무한한 존엄을 부여하셨음을 깨달도록”⁹⁾ 초대하시면서, 이러한 무한한 존엄성이 성실함으로 알아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근원적인 소여(所與)를 대변한다고 분명히 강조하셨다. 바로 이러한 깨달음과 환대에 기반할 때에, 인간이 지닌 사회성이 진정한 형제애의 지평을 향하게 되고 인간 존재들 사이의 새로운 공존에 기초를 놓는 것이 가능해진다. 오직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할 때에만, 모든 이의 사이에서 형제애에 대한 세계적 열망이 되살아나게 할 수 있다.”¹⁰⁾ 프란치스코 교황에 따르면, “인간 존엄과 형제애의 이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¹¹⁾ 그런데 인간 이성도 성찰과 대화를 통하여 이러한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6) 성 요한 바오로 2세,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주교회의 제3차 정기 총회 개막 연설, 1979.1.28., III.1-2, 『사목』 제63호(197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14-115면.

7) 베네딕토 16세, 교황청 생명학술원 정기 총회 참석자들에게 하신 연설, 2010.2.13., 『베네딕토 16세의 가르침』(Insegnamenti di Benedetto XVI), VI/1(2011), 218.

8) 베네딕토 16세, 유럽 평의회 개발 은행 모임의 참석자들에게 하신 연설, 2010.6.12., 『베네딕토 16세의 가르침』, VI/1(2011), 912-913.

9)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11.2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제2판), 178항,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AAS) 105(2013), 1094, 성 요한 바오로 2세, 오스나 브뤼크 주교좌 성당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드린 삼종 기도, 1980.11.16,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III/2, 1980, 1232를 인용한 부분.

10)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10.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제1판), 8항, AAS 112(2020), 971.

11) 「모든 형제들」, 277항.

다른 이들의 존엄을 존중해야 한다면, 이는 그러한 존엄을 우리가 지어내거나 상상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물질적 대상과 상황들보다 더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그들은 다르게 대우받아야 한다. 모든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존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문화적 변화와 무관하게 인간 본성에 속하는 진리이다.”¹²⁾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렇게 결론지으신다. “역사의 모든 시대에 걸쳐 인간은 동일한 불가침의 존엄을 지니고 있고, 그 누구도 자신이 상황에 따라 이러한 확신을 부정하거나 이를 거슬러 행동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여길 수 없다.”¹³⁾ 이러한 지평에서 회칙 「모든 형제들」은 인간 존엄성을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오늘날의 임무에 대한 일종의 “대헌장”이 된다.

가. 근본적인 설명

7. 비록 오늘날 모든 인간 존재가 지니는 고유하고 초월적인 가치와, 존엄성의 중요성과 규범적인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¹⁴⁾ “인간의 존엄”이라는 표현은 종종 많은 의미를 지닐 수 있고, 그렇게 모호함¹⁵⁾과 “모든 사람의 동등한 존엄이 ……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정받고 존중되며 보호받고 증진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모순”¹⁶⁾이 생겨나게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존엄성의 개념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깨닫게 된다. ‘존재론적 존엄성’, ‘도덕적 존엄성’, ‘사회적 존엄성’, 끝으로 ‘실존적 존엄성’이 그것이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단순히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하느님께서 그가 존재하기를 원하셨고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에게 속하는 ‘존재론적 존엄성’에 관계된 의미이다. 이 존엄성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될 수 없으며, 개인이 처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유효한 것으로 남는다. 반면, ‘도덕적 존엄성’이란, 인간 피조물이 행사하는 자유와 관련된다. 인간 피조물은 양심을 지니고 있지만, 언제나 양심을 거슬러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열려 있다.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면서, 인간 존재는 하느님께 사랑받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신의 본성에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이 가능성은 존재한다. 역사는 복음이 계시한 사랑의 법을 거슬러 행사하는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악을 가하는 극단에 다다를 수 있음을 증언한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조금의 인간성과 존엄성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도입한 존엄성의 구분은 사실상 ‘잃어버릴’ 수 있는 도덕적 존엄성의 차원과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존재론적 존엄성의 차원을 분간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바로 후자의 존재론적 존엄성 때문에 악을 행한 모든 이가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12) 「모든 형제들」, 213항.

13) 「모든 형제들」, 213항, 프란치스코, 국제 학술 회의 “현대 세계의 인권: 성취, 누락, 거부”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2018.12.10.를 인용한 부분.

14) 1948년 국제 연합의 인권 선언에 뒤이어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의 국제규약」이 있었고, 1975년 「유럽 안보 협력 회의 최종 합의 문서」(헬싱키 협정)이 있었다.

15) 국제신학위원회, 「인간 존엄성과 인권」(*Dignity and Rights of the Human Person*), 1983. 소개, 3항 참조;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톨릭 가르침의 요약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3편 제1부 제1장 “인간의 존엄성” 1700-1876항에서 볼 수 있다.

16) 「모든 형제들」, 22항.

8. 존엄성의 다른 두 가지 가능한 의미가 남아 있다. 바로 사회적 존엄성과 실존적 존엄성이다. ‘사회적 존엄성’이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극도의 가난은 한 사람이 그의 존재론적 존엄성에 따라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의 삶을 “품위 없는” 삶이라고 한다. 이러한 표현은 결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될 수 없는 그의 존엄성이 그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상황과 모순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존엄성의 마지막 의미는 ‘실존적 존엄성’이다. 오늘날에는 “존엄한” 삶과 “존엄하지 않은” 삶에 관해서 점점 더 많이 이야기한다. 이는 바로 실존적인 형태의 상황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부족하지 않지만, 여러 다른 이유로 인해 평화롭게, 기쁨과 희망을 지니고 살아가기 힘든 그런 경우를 말한다. 다른 경우에는 위중한 병이나 폭력적인 가정 환경, 병리학적인 의존증이나, 누군가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삶의 조건이 결코 흐려질 수 없는 존재론적 존엄성에 대한 지각에 견주어 “품위가 없다고” 체험하게끔 몰아붙이는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인간의 존재 자체에 뿌리박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그 존엄성의 양도할 수 없는 가치를 상기시킨다.

9. 여기서 “이성적 본성을 지닌 개별적인 실체”¹⁷⁾라는 인간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가 그 존엄성의 토대를 분명히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 “개별적인 실체”인 한에서 인간은 존재론적인 존엄성을 누린다. 다시 말해, 존재 자체의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그러하다.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존재를 받아서 “현존하는” 주체이다. 다시 말하면, 그 실존을 자율적으로 행사한다. “이성적”이라는 단어는 사실 인간 존재의 모든 능력을 포함한다. 지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물론이고, 원하고 사랑하며 선택하고 욕구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이성적”이라는 용어는 또한 위에서 말한 능력과 내밀하게 결합된 모든 육체적 능력 또한 포함한다. “본성”이라는 표현은 인간 존재에 고유한 조건들을 가리킨다. 이 조건들은 인간 존재를 특징짓는 다양한 작용과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본성은 “행위의 원리”이다. 인간 존재는 자신의 본성을 창조하지 않는다. 부여받은 선물로서 그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 고유의 능력을 기르고 발전시키며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이 지니는 풍요로움을 기르고자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이는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비록 다양한 한계나 조건으로 이러한 능력들을 실행에 옮길 수 없다 하더라도, 인간은 언제나 양도할 수 없는 모든 존엄성을 지닌 “개별적인 실체”로 현존한다. 예를 들자면, 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경우, 일부 지각이 결핍된 경우, 임종에 가까운 노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1. 인간 존엄성의 중심성에 대한 점진적인 자각

10. 이미 옛 고전에서¹⁸⁾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첫 번째 직관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17) 보에티우스, 「에우티케스와 네스트리우스 반박」(*Contra Eutychen et Nestorium*), c.3: 『라틴 교부 총서』(*Patrologia Latina: PL*), 64, 1344: “인간은 이성적 본성을 지닌 개별적 실체이다(persona est rationalis naturae individua substantia).”; 참조: 성 보나벤투라, 「제1명제집」(*Commentaria in Librum I Sententiarum*), d. 25, a. 1, q. 2; 성 토마스 데 아퀴노, 「신학 대전」(*Summa Theologiae*), I, q.29, a.1.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비롯된다. 곧, 모든 인간 존재는 그의 계급에 따라서 정해진 질서 안에서 특정한 존엄성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회 환경에서 사용되던 존엄성이라는 단어는 우주에 현존하는 존재들이 지닌 각각 다른 존엄성을 묘사하는 단어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존재는 전체가 이루는 조화 안에서 그들이 지니는 위치에 따라서 각자 자신의 “존엄성”을 지닌다. 분명, 고대의 정점을 이루는 사상들은, 이성을 지니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세상 안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간 존재가 지니는 고유한 위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¹⁹⁾ 그러나 우리는 아직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모든 인간이 지니는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토대를 놓을 역량을 갖춘 사상으로부터는 멀리 있다.

성경적 관점

11. 성경의 계시는 모든 인간 존재가 내재적인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 존재는 하느님의 모상과 유사함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창세 1,26-27). 인간다움은 그것이 단순한 물질성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성질을 띠고 있다. “모상”은 영혼 또는 지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지닌 존엄성을 의미한다. 남자와 여자 모두는 그들이 지닌 동등함의 상호적 관계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하며, 세상을 수호하며 가꾸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성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구분을 뛰어넘는 신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지닌 존엄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정당한 권리로 받은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니다. 모든 인간 존재는 하느님에게서 그 자체로 사랑받고 원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다. 구약 성경의 핵심인 탈출기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난한 이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 당신 백성의 비참을 보시는 분, 소외된 이와 억압받는 이를 돌보시는 분으로 드러내신다(탈출 3,7; 22,20-26 참조). 같은 가르침을 신명기계 법령에서 다시 발견한다(신명 12-26장 참조). 여기서 권리에 관한 가르침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 이방인의 세 부류를 옹호하는 인간 존엄성에 관한 ‘선언’으로 변한다. 탈출기의 옛 계명들은 예언자들의 설교에서 다시 언급되고 실현된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양심을 대변한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 예레미야 예언서는 장 전체를 할애하여 불의를 고발한다. 아모스 예언자는 가난한 이를 억압하고 빈곤한 이에게서 근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신랄하게 꾸짖는다(아모 2,6-7; 4,1; 5,11-12 참조). 이

18) 존엄성의 개념에 관하여 완전히 다 다루는 것이 이 「선언」의 목적은 아니므로,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일종의 예시로서, 그리스도교 철학과 신학에서 첫 성찰의 기준점이 된 소위 고전 그리스-로마 문화를 의미한다.

19) 예를 들어, 키케로, 『의무론』(*De Officiis*), I, 105-106 참조: 라틴어에서 옮김, “그런데 의무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다른 동물들과 짐승들보다 뛰어난 인간 본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더욱이 우리가 (인간) 본성이 지닌 탁월함과 존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방탕과 사치에 빠져 방종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추한지 그리고 검소하고 절제하며 청렴하고 신중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지 알게 될 것이다.” (*Scriptorum Latinorum Bibliotheca Oxoniensis*, ed. M. Winterbottom, Oxford 1994, 43).

사야 예언자는 가난한 이들을 정의롭게 대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짓밟는 이들을 거슬러 불행을 선포한다. “불행하여라, 불의한 법을 세우고 고통을 주는 규정들만 써 내려가는 자들! 이자들은 힘없는 이들의 소송을 기각시킨다”(이사 10,1-2). 이러한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지혜 문학에 다시 등장한다. “이웃의 밥줄을 끊는 자는 그를 죽이는 자고 일꾼의 품값을 빼앗는 자는 그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다”(집회 34,26-27).[** 역자 주: 집회서 장절 표기는 이 문서 원문과 달리 우리 말 「성경」을 따랐다.] 시편에서 하느님께 대한 경건한 행동은 약한 사람과 곤궁한 이를 옹호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약한 이와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불쌍한 이와 가련한 이에게 정의를 베풀어라. 약한 이와 불쌍한 이를 도와주고 악인들의 손에서 구해 내어라”(시편 82[81],3-4).

12.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시어 곤궁한 이들과 노동자들이 지닌 존엄성을 드러내셨다.²⁰⁾ 당신의 공생활 중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회적 조건과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하느님의 모상을 지니고 있는 모든 이가 지닌 가치와 존엄성을 확인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문화적 예식적 장벽을 허무시고 “버림받은 이들” 또는 사회의 주변부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이들의 존엄성을 거듭 확인하셨다. 이들은 세리(마태 9,10-11 참조), 여성들(요한 4,1-42 참조), 아이들(마르 10,14-15 참조), 나병 환자(마태 8,2-3 참조), 병자들(마르 1,29-34 참조), 나그네들(마태 25,35 참조), 과부들(루카 7,11-15 참조)과 같은 이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배불리시며 보호하시고 해방시키시며 구원하신다. 그분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로 묘사된다(마태 18,12-14 참조).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장 작은 형제들과 동일시하신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성경의 언어에서 ‘가장 작은 이들’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만이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는 제자들, 시시하다고 여겨지는 이들, 거절당한 이들, 억압받는 이들, 버림받은 이들, 가난한 이들, 이민자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병자들, 지배층으로부터 천대받는 이들을 말한다.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신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거나,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돕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이웃 사랑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이다(마태 25,34-36 참조). 예수님께는 혈연이나 종교와 무관하게 모든 인간 존재에게 행한 선이 유일한 심판의 기준이다. 바오로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인간 존재가 지닌 권리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의 요청에 따라서(로마 13,8-10 참조), 사랑의 새 계명에 따라서(1코린 13,1-13 참조) 행동해야 한다고 확인한다.

그리스도교 사상의 발전

13. 이어서 그리스도교 사상의 발전은 존엄성이라는 주제에 관한 인간적 성찰의 발전을 촉진하고 동반했다. 교회 교부들의 위대한 전통에 기반한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인간학은 하느님의 모상과 유사함으로 창조된 인간 존재에 관한 가르침과 창조 안에서 인간 존재가 지니

20) 성 바오로 6세, 예루살렘 성지 순례 중에 한 연설: 나자렛의 주님 탄생 예고 대성당 방문, 1964.01.05., AAS 56(1964), 166-170 참조.

는 유일한 역할을 강조한다.²¹⁾ 중세의 그리스도교 사상은 고전 철학 사상의 유산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다음 표현이 가리키는 것처럼, 인격이 지니는 존엄성의 형이상학적 토대를 인식하고 격(또는 위격, persona)의 개념에 대한 하나의 종합에 도달한다. “위격(persona)은 전 자연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것, 즉 이성적 본성에 있어서 자립하는 것을 표시한다.”²²⁾ 이어서 르네상스의 그리스도교 인본주의는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 특별히 드러나는 이러한 존재론적 존엄성을 강조한다.²³⁾ 데카르트나 칸트와 같이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인간학의 기초 가운데 일부를 토론에 부친 근대 사상가들의 전망에서도 계시의 반향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주관성의 규범에 관한 가장 최근의 철학적 성찰에 기반하여, 그리스도교 성찰은 근본적 관점에 도달하고, 존엄성의 개념이 지닌 농후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에 이른다. 그 예로 20세기의 인격주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주관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주관성과 인격을 서로 묶어주는 관계라는 방향으로 그 문제를 심화한다.²⁴⁾ 현재의 그리스도교 인간학의 제안 또한 이러한 전망에서 발전한 사상으로 풍요로워진다.²⁵⁾

오늘날의 시대

14. 우리 시대에 “존엄성”이라는 용어는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 견주어 볼 때, 비교할 수 없는 인격의 유일한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지평에서 1948년 국제 연합 「세계 인권 선언」에서 존엄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인권 선언은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하여 말한다. 오직 인간 존엄성이 지니는 이 양도할 수 없는 성격만이 인간의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²⁶⁾

15. 존엄성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존엄성이란 그들이 지닌 자질이나 능력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철회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인간 존재들로부터 인격에 부여되

21) 수없이 많은 언급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로마의 성 클레멘스, 1Clem. 33,4s, 『그리스 교부 총서』(Patrologia Graeca: PG), 1, 273; 안티오키아의 테오필로, Ad Aut. I, 4, PG 6, 1029; 알렉산드리아의 성 클레멘스, Strom. III, 42, 5-6; 8, 1145; Strom. VI, 72, 2, PG 9, 293; 리옹의 성 이레네오, 「이단 반박」(Adversus Haereses), V, 6, 1, PG 7, 1137-1138; 오리게네스, De Princ. III, 6,1, PG 11, 333; 성 아우구스티노, 「창세기 축자 해석」(De Genesi ad Litteram), VI, 12, PL 34, 348; 「삼위일체론」(De Trinitate), XIV, 8, 11, PL 42, 1044-1045 참조.

22)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권, 정의채 옮김, 1994년 제2판, 제1부, 제29문, 제3절, 본문: “persona significat id, quod est perfectissimum in tota natura, scilicet subsistens in rationali natura.”

23) Giovanni Pico della Mirandola와 잘 알려진 그의 작품 Oratio de Hominis Dignitate(1486) 참조.

24) 임마누엘 레비나스(1906-1995)와 같은 유대인 사상가에게 인간 존재는 다른 인간 존재에 대해 자신이 지니는 무한한 책임을 발견하는 만큼 지니게 되는 자유로 특징지어진다.

25) 성 존 헨리 뉴먼, 복자 안토니오 로스미니, 자크 마리탱, 엠마누엘 무니에르, 칼 라너,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와 같은 19세기와 20세기의 위대한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21세기 초반 우리 시대 사상의 조류들, 그들이 받은 영감이 무엇이든 포스트 모더니즘 또한 포함하여, 그 조류들과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인간에 관한 전망을 제시했다.

26) 이러한 이유로, ‘세계 인권 선언문은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의 원천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있음을 제시한다.’ 국제신학위원회, 「보편 윤리를 찾아서: 자연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In Search of a Universal Ethic: A New Look at the Natural Law), 2009.5.2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2(제1판), 115항.

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존엄성이 다른 인간 존재로부터 인격에 부여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양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는, 여전히 크게 존중할 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존엄성의 의미 자체가 부정될 위험에 노출된 채로 남게 한다. 사실, 존엄성은 인간에게 내재적인 것으로,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 이전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존엄성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 존재는, 이 존엄성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동일하고 내재적인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16. 따라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만물에 앞서는 인간이 지닌 고귀한 존엄성과 인간이 지닌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인 권리와 의무’²⁷⁾에 관하여 말한다. 공의회는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 존엄성」(*Dignitatis Humanae*)의 서론이 상기시키는 것처럼, “인간 존엄성을 사람들은 날로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강제를 받지 않고 의무를 자각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며,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고 행사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²⁸⁾ 이러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든 공동체적인 차원의 것이든 “계시된 하느님 말씀과 이성 그 자체로써 인식”²⁹⁾되는 인간 존엄성의 인식에 기반한다. 이 존엄성의 의미와 그와 관련된 요청과 함의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 점점 무르익으면서, 교회 교도권은 모든 인간 존재의 존엄성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자각에 도달했다.

2.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선포하고 증진하며 보장한다

17. 교회는 모든 인간 존재가 그들의 삶의 조건이나 그들이 지닌 자질과 무관하게 지니고 있는 동등한 존엄성을 선포한다. 이러한 선포는 삼중적인 확신에 근거한다. 이 확신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빛에 비추어 인간 존엄성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 내재적인 요청을 강화한다.

지워질 수 없는 하느님의 모상

18. 무엇보다 계시에 따르면 인간 존재가 지닌 존엄성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의 사랑으로부터 온다. 창조주께서는 인간 안에 지워질 수 없는 그분 모상의 특징을 새기셨고(창세 1,26 참조) 인간으로 하여금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모든 인간 남성, 여성과 더불어 형제애, 정의와 평화 안에서 그분과 계약의 관계를 살도록 부르신다. 이러한 전망에서 존엄성은 영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단일체로서의 인간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몸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인간의 몸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인간이 지닌

2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1965.12.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글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제3판), 26항 참조.

2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 존엄성」(*Dignitatis Humanae*), 1965.12.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1항.

29) 종교 자유 선언 2항.

하느님의 모상성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 몸 또한 영원한 행복 중에 영혼이 누리는 영광을 나누도록 부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들어 높이신다.

19. 두 번째 확신은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어 성자께서 인간 실존을 온전히 당신 것으로 삼으셨을 때에 인간이 지닌 존엄성이 충만히 드러났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강생의 신비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인간을 구성하는 몸과 영혼의 존엄성을 확증하셨다.”³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육화를 통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모든 인간 존재에 결합하시어, 모든 인간 존재는 단지 동일한 인간 공동체에 속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고 이 존엄성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음을 확인하셨다.³¹⁾ 하느님의 나라가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들, 몸과 영혼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모든 종류의 질병을, 특별히 한센병과 같이 더 극적인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당신에게 해 준 것이라 단언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현존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특히 “품위 없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의 존엄성을 알아보는 데에서, 커다란 새로움을 가지고 오셨다.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이 원칙은, 인간 개개인이 인간 ‘모습’을 잃어버릴 정도로 더 약하거나 비참하거나 고통받을 때 더욱더 우리의 존중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는 원칙으로, 버림받은 신생아들, 고아들, 독거노인들, 정신질환자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심각한 기형을 타고난 사람들, 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곤란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돌보는 시설들이 생겨나게 하여 세상의 얼굴을 바꾸었습니다.

존엄성의 충만을 향한 소명

20. 세 번째 확신은 인간 존재의 최종 목적지에 관련된다. 창조와 육화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 존엄성이 지닌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계시한다. 사실, “인간 존엄성의 빼어난 이유는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도록 부름 받은 인간의 소명에 있다.”³²⁾ 이 소명은 영원히 이어지도록 정해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그 출발, 곧 그것이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그 사실에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목적, 곧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친교를 맺으려는 목표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진리의 빛 안에서, 이레네오 성인은 인간에 대한 자신의 예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예찬을 완성한다. ‘하느님의 영광’은 진정 ‘살아 있는 인간’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을 뵈는 것이다.’”³³⁾

30) 교황청 신앙교리성, 생명 윤리의 특정 문제에 관한 훈령 「인간의 존엄」(*Dignitas Personae*), 2008.9.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62호(2020), 7항.

31) “하느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께서 당신의 강생으로 당신을 모든 사람과 어느 모로 결합시키셨기”(사묵 현장 22항) 때문에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하게 계시된다.

32) 사묵 현장 19항.

33) 성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 1995.3.2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제2판), 38항.

21. 따라서, 교회는 하느님의 모상과 유사함으로 창조되고,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아드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³⁴⁾ 모든 인간 존재들이 성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령의 활동 아래 성장하고 그 동일한 모상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고 단언한다(요한 10,15-16; 17,22-24; 2코린 3,18; 에페 1,3-14 참조). 참으로 “게시는 …… 인간의 존엄성을 온전히 밝혀준다.”³⁵⁾

자기 자신의 자유를 위한 노력

22. 비록 각각의 인간 존재는 존재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취소할 수 없는 선물로서 양도할 수 없는 내재적인 존엄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한 존엄성을 표현하고 그 심층까지 드러내느냐 그 존엄성을 흐리게 하느냐는 그의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에 달려 있다. 이레네오 성인,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인과 같은 몇몇 교회 교부들은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모상과 닮은 모습을 구분하면서 인간의 동일한 존엄성을 보다 역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하느님의 모상은, 성령의 인도와 활동에 따라 하느님과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 모든 인간이 그의 가장 높은 존엄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간 존재의 자유에 맡겨졌다.³⁶⁾ 사실 모든 인간은 하느님 사랑에 응답하여 자신이 지닌 자유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참된 선을 향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지닌 존엄성의 존재론적 가치를 실존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자유롭게 선을 받아들이라는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를 그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인간이 선에 **응답**하는 한, 그가 지닌 존엄성은 자유롭고 역동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다. 이는 인간 존재가 자신이 지닌 존엄성의 탁월함을 살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어떤 의미로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행동인 죄가 그 존엄성을 흐리고 그에 상처를 입힐 수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 그 죄는 인간 존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성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각하고 받아들이며 공고히 하고 그 본질적인 특징을 명확히 하도록 돕는 데에 결정적인 방식으로 기여한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분명히 하신 것처럼, “사실, 종교가 제공하는 교정이 없다면, 이성 또한 왜곡의 덫에 빠질 수 있다. 이는 이성이 이념에 의하여 조작되거나 어느 한 측면에서만 적용될 때에 벌어진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충만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결국, 노예제도와 그 밖의 다른 많은 사회적 악, 최근에는 20세기의 전체주의 이념에 기원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성의 왜곡된 사용이었다.”³⁷⁾

34)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받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엄성을 부여하신다. 참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13.1265.1270.1279항.

35) 종교 자유 선언 9항.

36) 『이단 반박』, V, 6, 1. V, 8, 1. V, 16, 2, PG 7, 1136-1138. 1141-1142. 1167-1168;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 『정교회의 신앙』(De Fide Orthodoxa). 2, 12, PG 94, 917-930 참조.

37) 베네딕토 16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한 연설, 2010.9.17., 『베네딕토 16세의 가르침』, VI/2 (2011), 240면.

3. 인간의 권리와 의무의 토대인 존엄성

23. 이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상기시키신 것처럼, “현대 문화에서, 양도할 수 없는 인간 존엄성의 원칙에 가장 가까운 언급은 「세계 인권 선언」이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이 선언을 ‘인류의 길고 지난한 여정 위에 놓인 이정표’이자 ‘인간 양심의 최고 표현 가운데 하나’라고 정의하셨다.”³⁸⁾ 이 선언이 지니는 심오한 의미를 무효화하거나 변조시키려는 시도에 맞서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려야 할 몇 가지 본질적인 원칙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

24. 첫째로, 비록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주제에 대한 감수성이 한층 커졌다 하더라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엄성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왜곡하는 많은 오해를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 (그리고 ‘인간의’ 권리[the right ‘of man’])이라는 표현 대신에, ‘인격의 존엄성’(personal dignity) (그리고 ‘인격의’ 권리[the rights “of the person”])라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제안하는데, 인격을 오직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존엄성과 권리는 지적 능력과 자유로부터 유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모든 인간 존재가 지적 능력과 자유를 지닌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거나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노인은 지적 장애를 지닌 이들과 마찬가지로 인격의 존엄성을 지니지 않을 것이다.³⁹⁾ 반대로 교회는 모든 인격이 지닌 존엄성은 내재적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남아 있으며 그를 인지하는 것은 절대로 인격의 지적 능력이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다면, 존엄성은 조건과 무관한,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인격에게 선천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인간 존재에게서 결코 사라질 수 없는 내재적인 존엄성을 알아볼 때에만, 그러한 특성에 침해될 수 없고 확실한 토대를 보장할 수 있다. 어떠한 존재론적 언급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지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자의적 평가의 힘 앞에서 흔들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선천적인 존엄성을 그 자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가 인간 종(種)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인격의 권리들은 곧 인간의 권리들이다.”⁴⁰⁾

인간의 자유를 향한 객관적인 기준

25. 둘째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은 종종 새로운 권리들을 임의로 늘리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새로운 권리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주 기존에 정의되

38) 프란치스코, 수요 일반 알현, 2020.8.12.,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 2020.8.13, 8면. 여기서 다음을 언급하셨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국제 연합 총회 연설, 1979.10.2., 7항과 국제 연합 총회 연설, 1995.10.5., 2항.

39) 「인간의 존엄」, 8항, AAS 100(2008), 863-864면 참조.

40) 국제신학위원회, 「모든 이의 선을 위한 종교 자유」(*La Libertà Religiosa per il Bene di Tutti*), 2019, 한 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2, 38항.

있던 권리들과 상충되고 기본권인 생명권과 상충되는 일도 드물지 않다.⁴¹⁾ 이는 마치 모든 개인적인 선호 또는 주관적인 갈망을 표현하고 실현하는 능력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 경우에 존엄성은 고립되고 개인주의적인 자유와 동일시된다. 이는 주관적인 몇몇 갈망과 경향을 전체 공동체가 보장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권리들’로 부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은 단지 개인적인 기준에 근거할 수 없으며 단지 개인의 정신물리적 안녕과 동일한 것일 수 없다. 오히려, 인간 존재가 지니는 존엄성의 옹호는 인간 본성의 구성적인 요청에 근거하는 것인데, 이는 개인의 재량에도 사회적 인정에도 달려 있지 않다. 따라서, 타인이 지닌 존엄성을 인정하는 데에서 나오는 의무와 여기서 유래하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들은 공통된 인간 본성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존엄성의 개념은 사실상 다양한 재량과 권력의 이익 아래에 놓이게 된다.

인간이 지니는 관계적인 구조

26. 인간이 지닌 **관계적인** 성격에 비추어 본 존엄성은, 우리가 선의 객관적인 규범과 다른 살아 있는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는 개인주의적인 자유라는 편협한 관점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사실, 인간 공동체에 속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무관하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운명을 재량껏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제한하려는 위험이 있다. 자유에 대한 이러한 그릇된 이해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게 하는 의무들과 권리들의 상호적 인정이 불가능해진다. 사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상기시키신 것처럼, 자유는 “인간에게 봉사하고, 자신을 내어 주고 타인에게 개방함으로써 자아의 완성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선물이다. 그러나 자유를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절대화할 때, 그 본래의 내용이 사라지며, 그 의미와 존엄성은 모순에 부딪히게 된다.”⁴²⁾

27. 이렇게 인간 존재의 존엄성은 동일한 인간 본성 안에 놓여 있는 타인을 향한 의무를 짊어지는 능력 또한 포함한다.

28. 존엄성의 개념 때문에 두드러지는, 인간 존재와 다른 생명을 지닌 존재들 간의 차이가 다른 창조된 존재들이 지니는 선성(善性)을 잊어버리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 존재들은 단순히 인간 존재가 사용하도록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가치 또한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인간에게 맡겨진 선물로서 소중히 여기며 관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인간 존재에게 존엄성의 개념을 유보하는 동시에 우주의 다른 창조물들이 지니는 선성을 확인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인간은 고유한 존엄과 지성을 지녔기에 피조물과 그것의 고유 법칙을 존중할 것을 요청받는다. …… ‘피조물들은 저마다 고유한 선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다.’ …… 저마다 고유한 존재를 지니기를 하느님께서 바라신 다양한 피

41) 프란치스코, 성좌 주재 외교단에게 한 신년 연설, 2024.1.8.: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2024.1.8, 3면.

42) 「생명의 복음」, 19항.

조물들은, 저마다 고유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의 빛을 반영한다. 이 때문에 인간은 각 피조물의 고유한 선을 존중하여 사물의 무질서한 이용을 피해야 한다.”⁴³⁾ 더욱이, “오늘날 우리는 오직 ‘상황에 맞는 인간 중심주의’만이 지지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다른 피조물들 없이 인간 생명을 이해할 수 없고 지속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다.”⁴⁴⁾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종(種)이 사라져 가고 기후 위기가 많은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⁴⁵⁾ 사실, 그 존재 자체를 보존하는 인간 생태학을 염두에 두면서 환경을 돌보는 것은 인간 존재의 존엄성에 속한다.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으로부터 인간 존재의 해방

29. 이러한 기초적인 전제 조건들은 그것이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인간 존엄성에 걸맞는 인간의 성장을 보장하기에 충분치 않다. “하느님께서” 선을 위하여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시어 인간에게 자발성과 자제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위를 다스릴 수 있는 인격의 존엄성을 주셨다.”⁴⁶⁾ 하더라도, 자유의지는 종종 선보다 악을 선호한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는 때에 맞게 해방될 필요가 있다. 바오로 성인은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다.”(갈라 5,1)고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인 각자의 고유한 과제를 환기시킨다. 그리스도인들의 어깨에는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할 책임이 지워져 있다(로마 8,19 이하 참조). 이 해방은 개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관계를 인간답게 만드는 그 힘을 전파하고 드러내라는 부름을 받았다.

30. 자유는 하느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실 때에도, 우리의 자유가 결코 침해받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끄신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그분의 도움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고 그 결과 더 존엄하다고 느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다. 자신의 창조주로부터 분리된 우리의 자유는 악화되고 흐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자유가 자기 자신이 아닌 모든 기준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이라 상정하고 앞서 있던 어떤 진리와 관련된 모든 관계를 위협으로 느끼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그 결과, 타인이 지닌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역시 줄어든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스스로 자신이 전혀 진리와 선을 추구할 수 없다고 믿는 의지는, 일시적이고 부차적인 이익을 제외하고는, 행동의 객관적인 근거나 동기를 갖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의지는 참으로 자유롭고 의식적인 결정을 통하여 수호하고 정립하여야 할 ‘정체성’을 지니지 못한다. 그 결과 그러한 의지는 다른 ‘의지들’에게 인정받기를 요구할 수 없다. 다른 의지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장 깊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또 다른 ‘의지들’을 또는 오히려 차라리 ‘의지’의 부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상대주의가 평화적 공존을 위한 열쇠를 제공한다는 환상은 실제로 분열을 자아

43)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015.5.2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제2판), 69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 339항에서 인용.

44)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67항.

45)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63항.

46) 『가톨릭 교회 교리서』, 1730항.

내고 인간 존엄을 부정하는 원인이다.”⁴⁷⁾

31. 모든 조건, 맥락 또는 한계와 동떨어진 추상적인 자유를 확인하는 것 또한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인간이 자유를 올바르게 행사하려면 경제, 사회, 사법, 정치, 문화 질서의 특수한 조건들이 필요한데,”⁴⁸⁾ 이러한 조건들은 종종 충족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이들이 다른 이들에 비해서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특별히 이 지점에 머무르신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에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거나 타고난 훌륭한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능동적인 국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자유만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몹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들,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병을 치료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같은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회가 시장의 자유와 효율성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 운영된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없으며 형제애는 그저 또 다른 막연한 이상으로만 남을 것입니다.”⁴⁹⁾ 따라서 인간 행위의 모든 차원과 관계에서 “불의가 제거될 때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증진된다.”⁵⁰⁾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진정한 자유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금 중심에 놓아야 하고, 이 기둥 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안적인 사회 구조가 건설되어야 한다.”⁵¹⁾ 이와 유사하게, 자유는 많은 심리적, 역사적,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조건으로 자주 흐려진다. 실질적이고 역사적인 자유는 언제나 “해방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강조해야 한다.

32. 동시에, 인류의 역사는 퇴행의 그림자와 위험이 있음에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이해의 진보를 보여준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종차별주의, 노예제도, 여성, 아동, 병자,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소외를 근절하려는 열망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점점더 세속화되는 사회에서도 누락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영향 아래서도 그러하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정은 아직 가야할 길을 많이 남겨두고 있다.

4.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몇 가지 심각한 침해

33. 인간 존엄성의 중심성에 대해 지금까지 한 성찰에 비추어 볼 때, 이 선언의 마지막 부분은 몇 가지 구체적이고 심각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다룰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교황들의 가르침에서 그 충만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 교도권의 고유한 정신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한편으로는 인간

47) 베네딕토 16세, 제44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2011.1.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43호(2011), 3항.

48)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 200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제2판), 137항.

49) 프란치스코,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10.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제1판), 109항.

50) 『간추린 사회 교리』, 137항.

51) 프란치스코, 2014년 세계 대중 운동 모임의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 2014.10.28: AAS 106 (2014), 858면.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환기시키는 데에 지치지 않으신다. “모든 인간은 품위 있는 삶과 온전한 발전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러한 기본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비능률적일지라도, 또는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성장의 한계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이러한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능률성이나 한계들은 인간으로서 지닌 위대한 존엄을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이 존엄의 기초는 환경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타고난 가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형제애와 인류의 생존을 위한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⁵²⁾ 다른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를 모든 이에게 알리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각자의 책임성을 일깨우고 실효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초대하신다.

34. 오늘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수많은 심각한 침해 가운데 몇 가지를 다루면서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침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 “온갖 살인, 집단 학살, 낙태, 안락사, 고의적인 자살과 같이 생명 자체를 거스르는 모든 행위”⁵³⁾는 인간 존엄성에 반대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체의 상해, 육체와 정신을 해치는 고문, 심리적 억압과 같이 인간의 온전함에 폭력을 자행하는 모든 행위”⁵⁴⁾는 우리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끝으로 “인간 이하의 생활 조건, 불법 감금, 추방, 노예화, 매매춘, 부녀자와 연소자의 인신매매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또한 노동자들이 자유와 책임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이윤 추구의 단순한 도구로 취급당하는 굴욕적인 노동 조건”⁵⁵⁾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형제도라는 주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⁵⁶⁾ 사실 사형제도 또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모든 인간이 지니는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침해한다. “사형에 대한 단호한 거부”는 모든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존엄을 인정하고 이 세상에서 인간이 저마다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보여 준다. 내가 최악의 범죄자에게서 그의 인간 존엄을 부인하지 않을 때, 나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살아갈 기회를 모든 이에게 줄 수”⁵⁷⁾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감옥에 갇힌 이들, 종종 치욕적인 조건에서 살아가도록 강요받는 이들이 지닌 존엄성을 강조하고,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라 하더라도 고문을 가하는 것은 모든 한계를 넘어 모든 인간 존재에게 고유한 존엄성에 반대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35. 이어지는 내용에서 모든 침해를 다 다룰 수는 없다 하더라도, 특별히 오늘날 당면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몇 가지 심각한 침해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52) 「모든 형제들」, 107항.

53) 사목 헌장 27항.

54) 사목 헌장 27항.

55) 사목 헌장 27항.

56)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7항; 참조: 신앙교리성, 「사형에 관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7항 수정에 대하여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2018.8.1., 7-8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24호 (2019) 참조.

57) 「모든 형제들」, 269항.

가난의 비극

36. 많은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는 현상 중 하나는 바로 부의 불평등한 분배와 연관된 극단적인 가난이다. 이미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때부터 강조되어 온 것처럼, “오늘날의 현실은 여기에 있다. 바로 너무 많이 가진 소수와 너무 적게 가진 다수이다. 이는 본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조리이다.”⁵⁸⁾ 또한 “부유한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로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은 기만적이라 할 것이다. 사실, 이미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세계의 절대 부가 절대 수치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불평등도 증대하고 있다. 잘사는 나라들에서는 새로운 사회 계층이 빈곤의 나락으로 빠지고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출현하고 있다. 빈곤 지역에 사는 일부 집단은, 지속되고 있는 비약적인 박탈 현상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대비되는 낭비적이고 소비 중심적인 일종의 ‘초발전’을 누리고 있다. ‘부당하고 원망스러운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⁵⁹⁾고 말씀하셨다. 이 부당하고 원망스러운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곳에서 가난한 이들의 존엄성은 그들의 일차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자원의 부족과 가난한 이들 곁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그들에게 보이는 무관심 때문에 이중적으로 부정당한다.

37. 따라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결론지어야 한다. “부는 증대되지만 평등은 없었고, 그 결과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출현하고 있다.’ 현대 사회가 빈곤을 감소시켰다고 하는 주장은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않는 과거의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함으로써 만들어진다.”⁶⁰⁾ 결과적으로 가난은 커져가는데, 이는 “그것이 불려올 심각한 결과를 깨닫지 못한 채 노동 비용 절감에 집착하는 경우에 드러난다. 그로써 조장되는 실업은 결국 곧바로 빈곤의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⁶¹⁾ 이러한 “돈의 제국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⁶²⁾ 가운데에서 “노동과 노동의 존엄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나쁜 빈곤은 없다.”⁶³⁾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아가, 어떤 이들이 발전의 가능성이 적은 가정이나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것이 그들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들의 존엄성은 바로 부유한 나라나 가정에서 태어난 이들이 지닌 존엄성과 동일하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정도라 하더라도, 이 명백한 불평등에 대해 책임이 있다.

전쟁

38. 과거에도 현재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또 다른 비극은 전쟁이다. “전쟁, 테러, 인종적 종교적 박해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많은 침해는 [...]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너무 흔히 벌어져서 이른바 «산발적 제3차 세계 대전»이라고 불릴 만한 양상’을 보인다.”⁶⁴⁾ 전쟁

58) 성 요한 바오로 2세,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1987.12.30., 28항 수정 번역.

59) 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2009.6.2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22항; 바오로 6세,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1967.3.26., 9항을 인용.

60) 「모든 형제들」, 21항; 「진리 안의 사랑」, 22항을 인용.

61) 「모든 형제들」, 20항; 참조: 같은 회칙 마지막의 “창조주께 드리는 기도”.

62) 「모든 형제들」, 116항; 2014년 세계 대중 운동 모임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을 인용.

63) 「모든 형제들」, 162항; 성좌 주재 외교단에게 한 연설, 2015.1.12., AAS107(2015), 165면을 인용.

은 파괴와 고통의 흔적을 남기면서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인간 존엄성을 공격한다. “우리는 정당방위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존재가 위협받고 있는 이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시 확인하면서도, 전쟁은 언제나 ‘인류의 패배’라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어떤 전쟁도 자기 자식이 신체를 훼손당하거나 죽음당한 것을 보며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어떤 전쟁도, 그것이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창조주와 비슷하게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된 거룩한 존재의 생명을 앗아갈 만한 것은 아니다. 어떤 전쟁도 우리 공동의 집을 유독물질로 오염시킬 만한 가치는 없다. 어떠한 전쟁도 강제로 조국을 떠나야 했던 이들, 이런저런 시기에 자신들의 집을 빼앗긴 이들, 어떤 경우에는 수 세대를 걸쳐 형성된 가족과의 유대, 친구와의 유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유대를 박탈당한 이들의 절망에 비할 수 없다.”⁶⁵⁾ 모든 전쟁은, 단지 인간 존엄성에 반대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분쟁이다.”⁶⁶⁾ 이는 죄 없는 많은 시민들이 전투가 이루어지는 장소 밖에서 희생되는 일이 일상화된 우리 시대에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다.

39. 그 결과, 오늘날에도 교회는 역대 교황들의 가르침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전쟁은 절대 안 된다!”⁶⁷⁾라고 거듭 강조하셨다, 나아가 교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과 함께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하느님의 이름과 인간의 이름으로 모든 이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살인하지 말라! 인간의 파괴와 전멸을 초래하는 일을 삼가라! 기아와 비참으로 시달리는 이들을 여러분의 형제이며 자매로 생각하라! 각 사람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라!”⁶⁸⁾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울리는 교회와 모든 인류의 외침이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신다.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해결책으로 생각할 수 없다. ……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오늘날에는, ‘정당한 전쟁’의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지난 수 세기에 걸쳐 발전되어 온 합리적 기준들을 지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⁶⁹⁾ 인류는 종종 과거에 행한 같은 잘못에 다시 빠지기 때문에,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정당성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⁷⁰⁾ 신앙과 인간 존엄성의 밀접한 관계에 의거할 때, 전쟁이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다는 것은 모순이 된다. “테러,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하고자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은 하느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전쟁은 종교 자체를 거스르는 전쟁이다.”⁷¹⁾

64) 「모든 형제들」, 25항: 2016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2016.1.1., 3-4항,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51호 (2015), 제13면, AAS 107(2015), 69-71면을 인용.

65) 프란치스코, 제6차 파리 평화 포럼 참석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2023.10.11.,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2023.11.10., 7면: 수요 일반 알현, 2022.3.23을 인용: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2022.3.23, 3면.

66) 프란치스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 연설, 2023.12.2: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2023.12.2, 2면.

67) 성 바오로 6세, 유엔에서 한 연설, 1965.10.4: AAS 57 (1965), 881면.

68)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인간의 구원자」(Redemptor Hominis), 1979.3.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9, 16항.

69) 「모든 형제들」, 258항.

70) 프란치스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 연설, 2023.6.14.: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2023.6.15., 8면.

71) 프란치스코,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에 한 연설, 2016.9.20.: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2016.9.22., 5면.

이주민들의 고통

40. 이주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난의 첫 번째 희생자들이다. 그들의 나라에서는 단순히 그들의 존엄성만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⁷²⁾ 그들의 삶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고 노동하거나 스스로를 돌볼 수단을 더 이상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⁷³⁾ 이주민들이 자신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지는 나라에 도착해서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사회생활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고, 그들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타고난 존엄성을 지닌다는 사실이 망각된다. …… 아무도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결정과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들을 가치와 중요성과 인간성을 덜 갖춘 사람들로 생각한다는 사실이 증명된다.”⁷⁴⁾ 따라서 언제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 시급하다. “모든 이주민은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에게나 존중받아야 할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을 가진 한 인간이다.”⁷⁵⁾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출신, 인종, 종교와는 무관한 모든 인간 존재의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⁷⁶⁾을 옹호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방식이다.

인신매매

41. 인신매매 역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 중에 하나로 여겨져야 한다.⁷⁷⁾ 인신매매는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비극적 차원을 띠고 발달해 온 것을 모든 이가 보았기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특별히 강한 표현으로 인신매매를 고발하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신매매’는 불명예스러운 행위이다. 문명화되었다고 말하는 우리 사회의 수치이다! 모든 차원의 인신매매업자들과 고객들은 자기 자신과 하느님 앞에서 진지한 양심 성찰을 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는, 사회 교리가 강조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권리들이, 곧 수백만에 달하는 남성과 여성들에게 이 권리들이 인정되지 않는 모든 대륙에서 이 근본적인 권리들이 존중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중심성이 언제나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한다. 권리들에 대하여 그토록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실제로는 인간 존엄성이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가! 권리들에 대하여 그토록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그 권리들을 지닌 유일한 것은 돈인 듯 보인다.”⁷⁸⁾

42. 그러한 까닭에, 교회와 인류는 “장기 매매와 소년 소녀들에 대한 성적 착취, 강제노역,

72) 참조: 「모든 형제들」, 38항: “따라서 ‘이주하지 않을 권리를 재천명해야 한다.’”: 베네딕토 16세, 제99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교황 담화, 2012.10.12.: AAS 104 (2012), 908면.

73) 「모든 형제들」, 38항 참조.

74) 「모든 형제들」, 39항.

75)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62항.

76) 「모든 형제들」, 39항.

77) 여기서 칙서 「사목적 직무」(Pastorale Officium, 1537.5.29.)에서 바오로 3세 교황께서 소위 ‘신대륙’의 땅에서 온 사람들의 존엄성에 대해 한 선언을 기억하는 것이 유용하겠다. 칙서에서 파문벌 항목 아래에서 그 땅의 주민들이 “인간이며 따라서 신앙을 가져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품 밖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자유나 그들의 소유에 대한 주권이 빼앗기거나 주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licet extra gremium Ecclesiae existant, non tamen sua libertate, aut rerum suarum dominio …… privandos esse, et cum homines, ideoque fidei et salutis capaces sint: 신경 편람 1495항.]

78) 프란치스코,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 총회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 2013.5.24.: AAS 105(2013), 470-471면.

성매매를 포함하여, 마약과 무기 거래, 테러와 조직적 국제범죄” 같은 현상에 맞서 싸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관련된 무고한 생명이 그토록 많기에 우리는 이를 단순히 수사학적 표현으로 보며 우리 양심을 안심시키려는 어떤 종류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제도들이 이 모든 재앙에 맞서 싸우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이 되도록 챙겨야 한다.”⁷⁹⁾ 인간 존엄성을 부정하는 이토록 다양하고 잔혹한 형태 앞에서, “인신매매는 언제나 인류를 거스르는 범죄”⁸⁰⁾라는 사실을 언제나 더 분명히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인신매매는 최소한 두 가지 실질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한다. “인신매매는 피해자의 자유와 존엄성을 공격하면서 피해자의 인간성을 훼손한다. 그런데 동시에, 인신매매는 그를 수행하는 사람을 비인간화한다.”⁸¹⁾

성폭력

43. 인간 존재가 자신의 영혼과 육신 전체 안에 타고난 심오한 존엄성은 모든 성적인 폭력이 그 피해자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기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었다고 느낀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평생 지속될 수 있고 어떠한 참회도 치유해 줄 수 없는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고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 교회의 사명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⁸²⁾ 여기서 교회는 교회 내부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종류의 학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

여성에 대한 폭력

44.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점점 더 분명히 인지되고 있는 국제적인 추문이다. 여성의 동등한 존엄성이 말로는 인정되지만, 일부 국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은 매우 심각하다. 많이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조차 구체적인 사회 현실은 종종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며 이를 강조하신다. “여전히 전 세계 사회 구조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말로는 표현되지만, 결정과 현실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척과 부당한 대우와 폭력의 상황에 시달리는 여성들은 흔히 그들의 권리를 수호하지 못하기에 이중으로 가난한 이들입니다.’”⁸³⁾

45.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미 이렇게 인지하셨다. “아내나 어머니이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차별을 미리 막아내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개인의

79) 프란치스코, 유엔에서 행한 연설, 2015.9.25.: AAS 107 (2015), 1039면.

80) 프란치스코, 신임장 수여 때에 외교관들에게 한 연설, 2013.12.12.: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2013.12.13., 8면.

81) 프란치스코,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 2019.4.11.: AAS 111(2019), 700면.

82) 세계주교시노드 제15차 정기 총회 “젊은이, 신앙, 성소 식별” 최종 문서, 2018.10.27., 29항,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61호(2020), 213면.

83) 「복음의 기쁨」, 212항, 「모든 형제들」, 23항에서 재인용.

권리에 대하여 말하자면,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임금, 노동하는 어머니들에 대한 보호, 승진의 공평성, 가정 권리에서 부부의 평등성, 민주국가 시민으로서 지니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인정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만 합니다.”⁸⁴⁾ 이러한 차원의 불평등은 폭력의 다른 형태들이다.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또한 다음을 상기시키셨다. “여성을 물건으로 삼는 ‘성폭력’을 강력히 단죄하고, 그러한 폭력에서 여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인격 존중의 측면에서 책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체계적인 성적 착취를 조장하며, 아주 나이 어린 소녀들까지도 돈을 위해 몸을 팔도록 타락시키는 만연된 향락과 상업적 문화입니다.”⁸⁵⁾ 여성에게 자행되는 폭력의 형태 가운데에서, 종종 남성들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머니와 자녀에게 해를 입히는 낙태의 강요를 어떻게 언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상기시키는 것처럼 남성들과 여성들의 동등한 존엄성에 어긋나고 또 “유일하고 독점적인 부부애”⁸⁶⁾에 어긋나는 일부다처제를 어떻게 언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46.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이러한 지평에서 여성에 대한 살인이라는 현상은 아무리 단죄해도 결코 충분치 않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 공동체 전체는 일치되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이렇게 강조하신다. “성모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여성들에 대하여, 우리 도시들의 삶의 보루인 우리들의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에 대하여 인정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언제나, 거의 언제나 조용히 삶을 이어갑니다. 이는 희망의 침묵과 힘입니다. 여러분의 증언에 감사드립니다! …… 하지만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 영향을 미치는 상처에 맞서 싸우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맞서 싸워야 할 그 상처는 바로 수많은 여성에 대한 살인입니다. 많은 벽 너머에서 수많은 폭력 상황이 침묵 중에 이루어집니다. 이 고통의 근원에 맞서 싸우자고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거부하는 입법과 문화를 촉진할 것을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⁸⁷⁾

낙태

47. 교회는 끊임없이 다음과 같이 상기시킨다. “모든 인간 존재의 존엄성은 내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는 수정의 순간부터 자연적 죽음에 이르기까지 유효하다. 이러한 존엄성에 대한 확언은 바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포기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자 필수조건이다. 또한 형제애와 사회적 우정이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필수조건이다.”⁸⁸⁾ 인간 생명이 지니는 이러한 침범할 수 없는 가치에 근거하

84) 성 요한 바오로 2세, 「여성들에게 보내는 교서」(Letter to Women), 1995.6.29., 4항, 『교회와 여성』,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제1판), 112면,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Insegnamenti) XVIII/1(1997), 1874면.

85) 「여성들에게 보내는 교서」, 5항.

86)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5항.

87) 프란치스코, 푸에르타의 동정 마리아 기념식에서 한 연설, 칠레와 페루 사도 방문, 2018.1.20.: AAS 110(2018), 329면.

88) 프란치스코, 신앙교리성 정기 총회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 2022.1.21.,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2022.1.21., 8면

여 교회 교도권은 언제나 낙태를 반대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다음과 같이 적으셨다. “생명에 대하여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죄 가운데 고의적 낙태는 특히 심각하고 통탄스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양심 속에서 이에 대한 감지 능력이 점차 흐려지고 있다. 대중의 마음 안에서, 행동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 법 안에서조차 낙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도덕적 판단력이 지극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음을 말하여 주는 징표이다. 이 도덕적 판단력은, 심지어 생명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조차 점점 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진리를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필요하며, 편리한 타협이나 자기 기만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사물을 ‘그 사물의 고유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예언자의 꾸짖음은 지극히 직선적이다. ‘불행하여라, 좋은 것을 나쁘다 하고 나쁜 것을 좋다 하는 자들! 어둠을 빛으로 만들고 빛을 어둠으로 만드는 자들!’(이사5,20) 특히 낙태의 경우에는 ‘임신 중절’과 같은 모호한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는 낙태의 참된 본질은 은폐하며, 여론 안에서 그 심각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이러한 언어 현상 자체가 바로 양심의 불편을 느끼는 증상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어떠한 말도 사물의 실재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고의적 낙태는 어떤 수단으로 이루어지든지, 임신[수정, 受精]에서 출생에 이르는 인간 존재의 출발 단계에서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이다.”⁸⁹⁾ 그렇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은 “자신을 방어할 힘이 전혀 없고 무죄하다. 최근 들어,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낙태를 부추기는 법을 통과시키는 등 태아의 인간 존엄성을 부인하고 제멋대로 태아를 다루려는 시도들이 자행되고 있다.”⁹⁰⁾ 따라서 우리 시대에 분명하고 강하게 다음과 같이 선언해야 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이러한 수호는 그 밖의 다른 모든 인권 수호와 밀접히 관련된다. 이는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발달 단계에서 언제나 신성불가침의 존재라는 확신을 전제로 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다. 이러한 확신이 사라지면, 인권 수호를 위한 견실하고도 지속적인 토대도 없어져, 인간의 권리는 늘 권력자의 편의에 번번이 휘둘릴 것이다. 이성만으로도 모든 인간 생명이 지닌 불가침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신앙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온갖 침해는 하느님의 응징을 초래하는 것이며, 그 개인의 창조주에 대한 범죄’이다.”⁹¹⁾ 여기서 모든 태아를 수호하고자 했던 콜카타의 데레사 성녀의 자애롭고 용기 있는 노력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리모

48. 교회는 대리모 관행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가진다. 무한한 존엄을 지닌 아기는 대

89) 「생명의 복음」, 58항. 인간 배아에게 마땅한 존중이라는 주제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신앙교리성, 태어나는 인간 생명의 존중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생명의 선물」(*Donum Vitae*), I, 4,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62호(2020), 129면, AAS 80(1988), 82면. “실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체내에서나 체외에서 살려 두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에 전적으로 위배된다.”

90) 「복음의 기쁨」, 213항.

91) 「복음의 기쁨」, 213항.

리모 관행을 통하여 그저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다. 이와 관련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다. “평화의 길은 생명에 대한 존중을, 제거되거나 암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어머니 태중의 태아에서부터 출발하여 모든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을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대리모 관행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는 여성과 아동의 존엄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이러한 관행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어머니에 대한 착취에 기반합니다. 자녀(아기)는 언제나 선물이고, 결코 계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계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관행을 금지하도록 국제 공동체가 노력을 기울이기를 염원합니다.”⁹²⁾

49. 대리모 관행은 무엇보다 아기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사실 모든 아기는, 고유하고 서로 구별되는 방식으로 드러나면서도 삶의 각 단계에서, 곧 수정과 출생, 소년소녀로 성장하여 성인이 되는 모든 순간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불가침의 존엄성을 지닌다. 따라서 아동은, 그들이 지닌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에 힘입어, 인공적으로 유도된 것이 아니라 충만히 인간적인 기원을 가질 권리, 내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존엄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생명의 선물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또한 인간이 지닌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 결합과 인간 출생이 지닌 존엄성을 모든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정당한 원의는 무상으로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선물의 수취인으로서 자녀 자신이 지니는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자녀를 가질 권리”로 변형될 수 없다.⁹³⁾

50. 대리모 관행은 동시에 그 관행 아래 놓이도록 강제되거나 자유롭게 결정한 여성 자신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여성은 자신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로부터 분리되고 타인의 이익이나 부당한 욕망에 예속된 수단으로만 전락한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모든 인간 존재가 지닌 근본적인 존엄성과, 다른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가 아니라 언제나 그 자신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권리에 반대된다.

안락사와 조력자살

51.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특수한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는 더 조용히 이루어지지만 점차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이는 인간 존엄성의 개념이 생명 자체를 거스르게 되는, 존엄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매우 일반적인 이러한 혼란은 우리가 안락사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법률들은 이따금 ‘존엄한 죽음에 관한 법률’(존엄사법)로 여겨진다.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부합된다는 생각이 매우 만연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고통은 환자가 내재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고유한

92) 프란치스코, 성좌 주재 외교단에게 한 신년 연설, 3.

93) 「인간의 존엄」, 16항: AAS 100(2008), 868-869면. 이 모든 차원은 당시 신앙교리성의 태어나는 인간 생명의 존중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생명의 선물」, I, 4: AAS 80(1988), 71-102면에서 정확하게 언급되었다.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적인 소속감의 연대를 강화하고 각 사람이 온 인류에게 가지는 소중함에 대한 의식을 한층 더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다시 분명히 해야 한다.

52. 분명히 위중한 상황이나 임종 과정 중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은 모든 연명의료 행위나 과도한 의료적 개입을 피하면서 적절한 완화적 치료를 통하여 그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에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치료는 “돌봄의 요구, 통증 완화, 정서적 영적 요구와 같은 환자의 요구를 이해해야 할 항구한 의무”⁹⁴⁾에 부합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제거하는 결정과는 다르고 구분되며 오히려 반대된다. 인간 생명은 고통스러운 조건에서조차 언제나 존중되어야 할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결코 상실될 수 없으며 이러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무조건적인 것으로 남는다. 사실,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인간 생명이 인간 생명으로 존엄하게 존재하기를 그치고 그래서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타인의 생명에 대한 존중은 자신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⁹⁵⁾ 따라서 스스로의 생명을 제거하려는 자살자에게 협력하는 것은,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의 원의를 이루어준다 해도, 그 요청자가 지닌 존엄성에 대한 객관적인 침해이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동반해야지 죽음을 야기하거나 어떤 형태든 자살을 도와서는 안 된다. 약자들, 특히 노인들과 환자들이 결코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돌봄 받을 권리와 모든 이의 치료받을 권리는 언제나 우선시 되어야 한다. 죽음이 권리가 아니라 생명이 권리이다. 죽음은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원칙은 단지 그리스도인 또는 신앙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해당한다.”⁹⁶⁾ 앞서 강조한 것처럼, 약하거나 고통받는 각 사람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포함한다.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버려짐

53. 모든 개인이 지니는 존엄성에 실제로 주의를 기울이는지 식별하는 한 가지 기준은 분명 가장 불리한 조건을 가진 이들에게 제공되는 도움이다. 불행히도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돌봄이 매우 두드러지지 않는다. 오히려 “버리는 문화”가 더 우세해지고 있다.⁹⁷⁾ 이러한 경향에 맞서기 위해서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결함의 상황에 놓인 이들의 조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염려가 필요하다. 복음의 이야기들에서 매우 잘 드러나는 특정한 취약성이 지니는 이러한 조건은⁹⁸⁾ 특별히 손상되거나 장애를 지닌 상태에서 출발하여 인간으로 존재한다

94) 신앙교리성, 중증 말기 병자의 돌봄에 관한 서한 「착한 사마리아인」(*Samaritanus Bonus*), 2020.7.14., V, 4항, AAS 112(2020), 925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64호(202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14면.

95) 「착한 사마리아인」, V, 1항, AAS 112(2020), 919면.

96) 프란치스코, 수요 일반 알현, 2022.2.9.,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2022.2.9., 3면.

97) 무엇보다 다음을 참조하라. 「모든 형제들」, 18-21항: “세상의 버림”. 이 회칙의 188항은 이를 “버리는 문화”로 정의하기에 이른다.

98)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 주최 학술회의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 2017.10.21.: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2016.10.22., 8: “취약성은 인간의 본질에 속한다.”

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관한 보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인간의 불완전함에 관한 문제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도 분명한 함의들을 가지는데, 일부 문화에서는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정말 고유한 의미로 “버려진 이들”로 여겨지면서 소외 또는 억압을 당하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인간 존재는, 그들이 어떤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하느님께서 그들을 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자체로 그 존엄성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까닭에 어떤 식으로든 취약함이나 장애를 지닌 모든 사람이 사회생활과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⁹⁹⁾

54. 더 폭넓은 관점에서 우리는 다음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치의 정신에서 핵심이 되는 이 애덕은 언제나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사랑이다. 이들을 위한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이 사랑이 있다. ……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살피려면 강인함과 온유함을 지녀야 한다. 가차 없이 ‘버리는 문화’로 이끄는 기능주의와 개인주의의 풍조 한 가운데에서 분투하며 풍성한 결실을 이루어야 한다. …… 이는 극도로 소외되고 비참한 상황에 있는 현재를 책임지고 현재를 성화함으로써 현재를 품위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인간의 존엄과 조건을 보호하는 모든 여건이 마련되도록’ 보장하는 집약된 활동을 복돋아 줄 것이다.”¹⁰⁰⁾

젠더 이론

55. 교회는 무엇보다 “모든 이가 자신의 성적 성향에 관계 없이 그 존엄을 존중받고 사려 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어떤 부당한 차별의 기미’, 특히 모든 형태의 공격과 폭력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¹⁰¹⁾ 이러한 이유로 어떤 곳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단지 그들의 성적 성향을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으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를 박탈당하기에 이른다는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규탄하여야 한다.

56. 동시에 교회는 젠더 이론에 나타나는 완고한 비판적 성격들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다음을 상기시키신다. “평화의 길은 우리가 곧 75주년을 기념하게 될 국제 연합 인권선언에 담긴 단순하지만 분명한 정식에 따라 인권에 대한 존중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분명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원칙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최근 수십 년 동안 새로운 권리들을 도입하려는 시도들은 기존에 정의되었던 권리들에 비교하여 충분히 견고하지도 않고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념적 식민화에 발단을 제공하는데, 이 가운데 젠더 이론이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합니다. 이 이론은 매우 위험한데, 왜냐하면 모두를 동등하게 만들겠다고 자처하면

99) 참조: 프란치스코, 국제 장애인의 날 기념 메시지, 2020.12.3.: AAS 112(2020), 1185-1186면.

100) 「모든 형제들」, 187-188항; 프란치스코, 유럽 의회에서 한 연설, AAS 106(2014), 999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관료와 외교단과의 만남에서 한 연설, Bangui, 2015.11.29., AAS 107(2015), 1320 인용.

101)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2016.3.1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6, 250항, AAS 108(2016), 412-413면 수정 번역;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58항 인용.

서 차이를 없애 버리기 때문입니다.”¹⁰²⁾

57. 젠더 이론과 관련하여, 이 이론의 과학적 일관성에 대한 논의가 전문가 집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는 인간 생명은 모든 육체적 영적 요소에서 하느님의 선물이고, 이 선물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선을 위한 봉사가 되어야 한다. 젠더 이론이 규정하는 것처럼, 선물로서의 인간 생명이라는 기초적인 진실과 관계 없이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느님이 되고자 하여 복음이 계시한 사랑의 참된 하느님과 경쟁하고자 했던 오래된 유혹에 빠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58. 젠더 이론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강조할 것은 이 이론이 생명이 있는 존재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가운데에서 가능한 가장 큰 것, 곧 성별의 차이를 부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기초적인 차이는 단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가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차이기도 하다. 이 차이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부부 안에서 상호성의 가장 감탄할 만한 상태에 이른다. 그리고 그렇게 이 기적의 원천은 새로운 존재가 세상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를 놀라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59. 이러한 의미에서, 젠더 이론이 제안하는 새로운 권리들에 대한 요청이 확산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한 존중은 본질적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사회를 꿈꾸며 가정의 인간학적 기초를 없애는 것이다.”¹⁰³⁾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 갈망에 대한 응답이라고 주장되는 일부 젠더 이데올로기는 스스로를 절대적 이념으로 내세우며 심지어 자녀 교육까지도 좌우하려는 것이기에 염려가 된다.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 문화적 성 역할(gender)은 구분되지만 별개의 것이 아니다.”¹⁰⁴⁾ 따라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없앨 수 없는 성적 차이에 관한 언급을 흐리는 이러한 모든 시도를 배격해야 한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하느님의 창조 활동과 떼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남성성과 여성성은 우리의 모든 결정이나 체험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생물학적 요소들이 존재한다.”¹⁰⁵⁾ 모든 인간은 오직 상호성 안에서 이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만 자기 자신과, 자신이 지닌 존엄성 그리고 정체성을 충만히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성전환

60. 몸이 지니는 존엄성은 인간이 지니는 존엄성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져서는 안 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인간의 육체는 ‘하느님 모습’의 존엄성에 참여한다”¹⁰⁶⁾는 것을 인정하도록 우리를 분명히 초대한다. 무엇보다 성전환에 대해서 다룰 때에 이러한 진리를 기억

102) 프란치스코, 성좌 주재 외교단에게 한 신년 연설, 2024.1.8.,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2024.1.8., 3.

103) 「사랑의 기쁨」, 56항.

104) 「사랑의 기쁨」, 56항; 세계주교신노드 제14차 정기 총회 「최종 보고서」, 2015.10.24., 58항.

105) 「사랑의 기쁨」, 286항.

106) 『가톨릭 교회 교리서』, 364항.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인간 존재는 나누어질 수 없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며, 육체는 영혼의 내면성이 펼쳐지고 드러나는 살아 있는 자리이다. 이는 인간의 관계망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를 구성하면서, 영혼과 육체는 모든 인간 존재를 특징짓는 그 존엄성에 참여한다.¹⁰⁷⁾ 이와 관련하여 인간의 몸은 그 몸이 특별히 자신의 성적인 조건에서 인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인간의 존엄성에 참여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¹⁰⁸⁾ 사실 모든 인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태어났음을 인정하는 것은 몸 안에서이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다른 사람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도 그들의 몸을 통해서이다. 인간이 지닌 자연적 질서를 존중할 필요에 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신다. “창조는 우리를 앞서는 것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인성을 보호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성을 받아들이고 창조된 대로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¹⁰⁹⁾ 여기서 모든 종류의 성전환을 위한 개입은 원칙적으로 인간이 수정[受精]의 순간에 부여받은 유일한 존엄성을 위협할 위험이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어떤 사람이 출생의 순간부터 이미 분명히 드러나는 생식기의 이상을 타고나거나, 후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서 이러한 이상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의학적 도움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외과적 수술은 여기서 의도한 의미의 성전환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디지털 폭력

61.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인간 존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착취, 배제, 폭력이 증가하는 세상을 만드는 쪽으로 점점 더 기울고 있다. 이러한 수단을 활용하여 가짜 뉴스와 허위 고발로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명성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떠올려 보자. 이점에 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다음을 강조하신다. “단순한 가상 접촉을 소통과 혼동하는 것은 건강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디지털 세상은 고독, 조작, 착취, 폭력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크웹>(dark web)과 같은 극단적 사례까지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는 진정한 대인관계의 발전을 차단하면서 사람들을 중독과 고립의 위험, 그리고 구체적 현실과의 접촉을 점차 잃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괴롭힘(cyber-bullying)처럼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퍼져 나갑니다. 웹은 음란물을 유포하고 성적인 목적을 위하여, 또는 도박으로 사람들을 착취하는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¹¹⁰⁾ 그리고 그렇게 연결의 가능성이 커지는 곳에서 역설적으로 각자가 언제나 더 고립되고 궁핍한 대인관계의 현실을 마주하는 일이 별

107) 이는 망자의 몸에 대한 마땅한 존중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참조: 예를 들어, 신앙교리성, 죽은 이의 매장 과 화장의 경우 유해의 보존에 관한 훈령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Ad Resurgendum cum Christo*), 2016.8.15., 3항,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55호(201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68면. “세상을 떠난 신자들의 시신을 매장함으로써 교회는 부활에 관한 교회의 믿음을 확인시키고,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인 인간 육신의 커다란 존엄을 보여 주고자 한다.” 더 개괄적으로는, 국제신학위원회, 「오늘날 종말론의 문제들」(*Problemi attuali di escatologia*), 1990, 5항 “부활로 부르심을 받은 인간” 참조.

108) 「찬미받으소서」, 155항 참조.

109) 「사랑의 기쁨」, 56항.

110)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Christus Vivit*), 2019.3.2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88항, AAS 111(2019), 413;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5차 정기 총회 최종문서, 23항 인용.

어지기도 한다. (개인들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모든 것을 보여 주고자 한다. 그 안에서 모든 개인은 흔히 익명으로 모든 사물과 개인을 들추고 벗기며 폭로하는 관찰 대상으로 전락한다. 다른 이들에 대한 존중은 무너지고, 그렇게 하여 우리는 다른 이들을 묵살하고 무시하며 멀리하는 동시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른 이들의 삶을 속속들이 엿볼 수도 있다.”¹¹¹⁾ 이러한 경향은 디지털의 발달이 지니는 어두운 면을 대변한다.

62. 이러한 관점에서 만일 기술이 인간 존엄성에 봉사해야 하고 그 존엄성에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면, 기술이 폭력이 아니라 무엇보다 평화를 증진해야 한다면, 인간 공동체는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러한 경향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하고 선을 증진해야 한다. “세계화된 이 세상에서 ‘대중 매체는 우리를 서로 좀 더 가깝게 느끼게 해 주고, 인류 가족의 새로운 일체감을 조성하게끔 도와줄 수 있다. 이 일체감은 모든 이의 더욱 존엄한 삶을 위한 노력과 연대를 재촉한다. …… 이와 관련하여 대중 매체는 특별히 인간 커뮤니케이션 관계망이 전례 없이 발전한 오늘날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은 모든 사람에게 만남과 연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준다. 이것은 정말 좋은 것으로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현대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들이 우리를 관대한 만남으로, 충만한 진리에 대한 성실한 추구로, 봉사로,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감으로, 공동선을 이룩하려는 노력으로 이끌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¹¹²⁾

결론

63.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반포 7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다음을 강조하셨다. 이 선언은 “기본이 되는 설계와 같아서, 그 문서로 인해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종종 퇴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권을 위한 노력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 옹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일상 삶 안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투쟁하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있습니다.”¹¹³⁾

64. 교회가 이 「선언」과 더불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있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공동선을 위한 노력과 모든 사법 체계의 중심에 두라고 열정적으로 격려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 안에서이다. 사실 각자가 그리고 모두가 지닌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권력의 힘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에 기반한다고 여기는 모든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한 불가피한 기초이다. 인간 존엄성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 모든 시민사회의 공존에 앞서고 또 거기에 기초를 제시하는 근본적인 인권들이 세워진다.¹¹⁴⁾

111) 「모든 형제들」, 42항.

112) 「모든 형제들」, 205항; 프란치스코, 2014년 제48차 홍보 주일 담화, 2014.1.24.,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50호(2014), 43면, AAS 106(2014), 113면 인용.

113) 프란치스코, 삼종 기도, 2023.12.10.,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2023.12.11., 12.

114) 국제신학위원회,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Dignità e diritti della persona umana*), 1983, 2항 참조.

65. 따라서 각 개인과 모든 인간 공동체에게는 인간 존엄성을 구체적이고 유효한 방식으로 실현할 임무가, 국가들에게는 단순히 이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온전한 증진 안에서 인간 존엄성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필수적인 조건들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정치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겉모습이 어떠하든 모든 사람은 지극히 거룩하고 우리 사랑과 헌신을 받아 마땅하다.’”¹¹⁵⁾

66.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류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수많은 침해 앞에서, 교회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성격과 관계 없이 모든 인간이 지닌 존엄성을 증진하도록 격려한다. 교회는 모든 남성과 여성이 지닌 통합적인 존엄성을 충만히 계시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힘을 받아 확신을 갖고 희망으로 이 일을 한다. 이러한 확실성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통해 간청이 된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이에게 자신의 존엄을 잊지 말도록 호소합니다. 아무도 이 존엄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¹¹⁶⁾

교황 성하께서는 2024년 3월 25일, 아래 서명한 신앙교리부 장관과 신앙교리부 교리 부서 차관에게 허락된 알현에서 2024년 2월 28일 본 신앙교리부 정기회의에서 확정된 이 「선언」을 승인하시고 출판을 명하셨다.

2024년 4월 2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선종 19주년 기념일

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
교리 부서 차관 **아르만도 마테오** 몬시뇰

2024년 3월 25일 알현에서

프란치스코

<원문: Declaration of the Dicastery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on Human Dignity, “*Dignitas Infinita*”, 2024.3.25. 김성수 번역>

이탈리아어:

https://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uments/rc_ddf_doc_20240402_dignitas-infinita_it.html

115) 「모든 형제들」, 195항;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74항 인용.

116) 「찬미받으소서」, 205항.